신안에 가면 하늘·땅·바다 '체험 세상'

증도 우전해수욕장서 29~31일까지 '섬·갯벌 축제'

별 밤 관측에 느리게 걷고, 갯살림 돌아보는 재미

섬과 갯벌을 테마로 한 축제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 증도에서 펼쳐진다.

신안군은 오는 29일부터 증도면 우전 해수욕장 일원에서 '슬로시티 증도만의 갯살림 이야기'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섬 갯벌 축제'를 연다.

증도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습지보호지역,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매년 100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이번 축제에서는 해변·갯벌·백합·천일염 체험을 비롯해 소금 포대 이어달리기 등 체험을 하면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갯벌씨름과 갯벌 닭싸움, 갯벌 밀어내기, 짱뚱어잡기, 백합체험, 삿대·개매기 체험 등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갯벌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증도주민 마을대항 줄넘기대회를 비롯해 1004인분 수박화채 만들기, 한마음 이어달리기, 주민 밴드 '노래하는 슬로시티 사람들' 공연, 신안 증도문화 스토리텔링 '증도 갯살림 돌아보기' 등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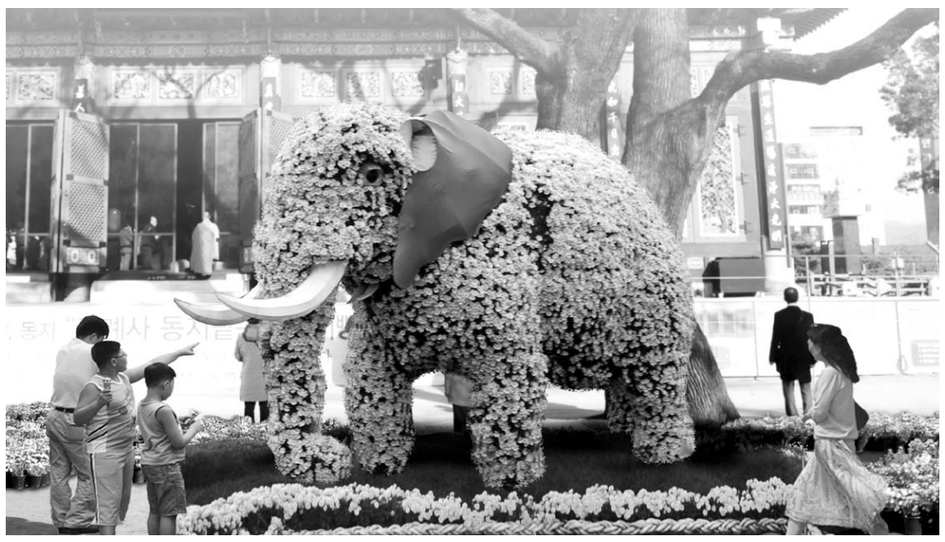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을 이용한 소금인형 만들기, 손목매트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일 '깜깜한 밤(Dark-sky) 별을 헤다' 프로그램은 30일 10시께 행사장 주변 모든 불을 끄고 어린 시절 시골에서 해안가를 거닐며 푸른 은하수와 반짝이는 별을 보는 행사로 벌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연계행사로 태평염전 체험과 소금비누 만들기, 소금박물관 관람, 신안 갯벌센터·슬로시티센터 관람 등이 진행된다.

한편 신안군 '증도'는 지난 2007년 12월 '슬로시티'와 갯벌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갯벌습지호보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3월 증도대교 개통에 따라 뭍과 연결됐으며 자동차 없는섬, 자전거 섬, 금연의 섬, 밤하늘에 별헤는 섬, 친환경세제, 친환경 농업 등 차별화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함평 국화, 서울 조계사 수놓는다

10월 21일~11월 10일 국향대전… 꽃밭 등 조성 전시

함평 국화가 오는 10~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 전시된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은 조계사와 협약을 맺고 함평국향대전 기간인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계사 일주문 입구에 다륜대작 1점을 전시하고 조계사 울타리를 국화로 장식한다.

또 코끼리 모양의 국화조형물도 〈사진〉전시하고 330㎡ 규모의 국화꽃밭을 조성한다.

이 기간에 조계사 경내에서 함평 농·특산물도 판매한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인 국향대전을 서울 시민과 불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함평군과 조계사가 협력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대한민국 최고 명품 국화를 조계사 내 전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계사를 찾는 많은 서울 시민과 불자들에게 아름다운 고장 함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 새얼굴

목포항 서남권 중심 물류항만 조성

최익현 목포해양항만청장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와 목포신항 적기 건설 등 지역발전 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최익현(55)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목포항을 서남권의 해상운송과 물류의 중심항만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다져 나가겠다"며 "여객선 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해상교통체계 구축,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출신인 최 청장은 1984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후 해양수산부 해운정책 사무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 서기관,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회장 총괄운영부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정해씨와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수영 즐기고 한우 고기 싸게 사고…

농협 목포유통센터 야외수영장 운영

농협 목포유통센터(사장 최종대)는 내방고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다음달 28일까지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

야외 수영장은 대형 풀과 어린이풀, 미끄럼틀 등으로 시설되어 있고 샤워실, 탈의실, 그늘막, 물놀이 대여소, 물품판매소 등 편리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입장료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 2000원이며, 하나로클럽 및 식자재매장 이용 고객에게는 1000원 할인권을 증정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목포 유통센터는 야외수영장 운영기간동안 불고기용과 구이용 한우암소를 절반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를 통해 산지 한우가격 하락과 한우사료 등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중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들을 위한 한우 소비촉진도 펼치고 있다.

최종대 목포유통센터 사장은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한우를 구입한 후 도축해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중간유통단계를 없애고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며 "한우 소비촉진으로 지역 축산농가도 돕고 가족들과 함께 경제적인 휴가를 보내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진도 울돌목 등 10곳 조류 관측

해양조사원 서해사무소

안전항해·경제 항로 개척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강한 진도 울돌목 등 진도 10개 지점에 대해 조류관측을 실시한다.

국립해양조사원 서해 해양조사사무소는 선박의 안전항해 및 경제 항로 개척과 해양오염 물질의 이동·확산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한 달간 진도해역 조류 관측에 나섰다.

서해 해양조사사무소는 156t 해양조사선 바다로 3호에 설치된 자기기록식 유속계(RCM)를 이용해 유속 등 해수의 흐름을 파악할 예정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지로 유명한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조류가 흐르는 울돌목이 자리하고 있으며 강한 물살을 이용한 조류발전소가 가동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와 조류 예보표를 통해 제공되며 이 자료를 이용, 진도 부근의 유속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하림, 익산 식품클러스터 입주

지원센터와 시설 투자 협약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전북도, 익산시는 지난 22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국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 ㈜하림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하림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단지에 33만㎡ 규모의 닭고기 신선육과 육가공품 생산시설을 투자한다.

또 지원센터와 전북도·익산시는 하림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행정지원에 최대한 협력하며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게 된다.

박종국 지원센터 이사장은 "현재 여러 국내식품업체와 투자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금번 하림과의 투자 MOU 체결은 식품업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2015년까지 총 5천535억원(민자 3285억원 포함)을 투자해 150개의 식품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된 R&D 수출지향형 국가 식품 전문산업단지(23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쫀득쫀득 '고창 찰옥수수' 본격적인 옥수수 수확철을 맞아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 옥수수 선별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창군은 아산면·신림면 2개소 68ha에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 올해 600여t을 수확할 예정이다. 〈고창군 제공〉

군산 해망동 해상매립지에 체육공원

국가계획 확정 본격 개발

4600억 투입 레저시설로

군산 해망동 해상매립지가 해상 체육공원 등으로 본격 개발된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수립중인 '제3차항만 기본계획변경안'에 항만 친수시설로 반영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7월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항만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군산항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해상매립지를 항만 친수시설로 반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609억을 투입해 진입 교량 2기와 친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해상매립지는 군장항 매몰 현상으로 인한 항로 수심유지를 위해 지난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770억을 들여 61만평 규모의 투기장을 조성하고, 군장항로 유지준설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나오는 준설토 1500만㎥를 투기해 육지화된 인공섬이다.

그동안 해상 매립지는 국가 준설계획에 맞춰 군산시는 해상도시 건설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했으나 서천군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상매립지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다가, 군장대교 건설로 서천군과의 접근성이 확보됨에 따라 양 지역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상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산시가 2009년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정부에 국가계획으로 반영·요청한 결과 결실을 보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2년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 진입교량 건설을 시작으로 내부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풍파겪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농진청 청사 이어 전기안전공사 등 8개기관 연내 착공

농업진흥청 등 5개 농업기능군(群) 기관이 지난 21일 전북 혁신도시에 처음 청사를 착공함으로써 나머지 이전 기관들의 청사 착공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본격화 =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농수산대학 등 5개 기관은 2014년 말 이전을 목표로 총 1조8000억 원을 투자해 시험연구동과 부속시설 140여 개를 짓고 대규모 농작물 시험포장을 조성한다.

지방행정연수원도 부지 조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에 청사를 착공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청사는 18만1000여m의 부지에 총 1700여억 원을 들여 4만7000여m 규모로 들어선다.

청사가 완공되면 2013년 상반기부터 총 149개 과정에 연간 15만여 명의 공무원이 입교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연말까지 신청사를 착공할 계획이어서 총 12개 이전 대상 기관 중 8개가 올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밖에 한국 농수산대학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내년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의 전체 부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현재 분양률도 90%를 웃돌아 전국 최고다.

◇경제적 파급효과 상당=농촌진흥청과 전북 발전연구원, 전북 혁신도시추진단은 우선 국립 농업과학원, 국립 식량과학원,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국립 축산과학원을 비롯해 60여개 관련기업이 동반 이전함으로써 9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5개 기관의 직원 2795명, 관련기업 586명 등 3380여 명이 가구당 2.7명의 가족과 함께 이주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또 건설단계(2011~2014년)에서 생산유발 효과는 7200억 원으로 추정돼 전북지역내 총생산(3조2000억원)의 23%, 부가가치효과는 2800억 원으로 전주시 예산(1조 원)의 28% 가량에 해당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7400명으로 분석됐다. 이어 운영이 본격화하는 2015년부터는 매년 37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8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예상됐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 24시간 전면 개방

전북도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24시간 전면 개방한다.

모든 구간의 차량제한 속도를 시속 70㎞로 제한하고 무게가 43t을 넘는 화물차량은 통행을 막기로 했다. 이 도로는 지난해 4월 27일 개통했으나 그동안 1호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 등으로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제한적으로 임시 개방됐다. 방조제 도로 전면 개통과 함께 야미도~신시도 구간에 오토바이 체험장과 오토캠핑장, 수상레포츠 시설들이 함께 문을 열게 돼 주변지역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농협 정읍시지부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김흥선)가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읍시지부는 1·2월 예금·대출·카드, 보험 평가에서 만점으로 전국 156개 지부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다. 또 3·6월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농업자금 지원, 농산물 판매사업, 고객서비스 부문에서도 최상위 성과를 달성했다.

김흥선 지부장은 "시민이 농협을 사랑해주고 전 직원이 하나돼 노력할 결과"라며 지역경제 기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소방서 현장맞춤 '119 안전 복지서비스'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는 지난 20일 진봉면 상궐리 해망마을에서 현장맞춤형 '119안전복지서비스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김제보건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소방 안전점검을 비롯해 노후 전기시설, 가스·난방시설을 정비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김화성 소방서장 은 "기초 소방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사회안전 네트워크 를 구축해 '화재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내달 17~19일 천문캠프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여름방학과 하계휴가 기간을 맞아8월 17~19일(오후 4시~밤 9시) 사흘간 '가족과 이웃이 하나되는 여름 천문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에서는 천체관측 · 영상관람 외에도 물로켓 발사, 야광 별자리판 만들기, 천문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1회당 4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전화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기본 관람료(성인 4000원·어린이 2000원)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